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중고등부 헌신 예배 (특송)

2024년 8월 5일(월)~7일(수)까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3. 8.15해방 79주년 감사 주일

2024년 8월 11일(다음 주일)은 8.15해방 79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4.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2024년 7월 29일(월)~31일(수)까지 어린이 드림캠프(Dream Camp)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 교회학교 여름사역

중고등부·청년부 : 8월 5일(월) ~ 7일(수) / 궁평아일랜드펜션 (304)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수건,비누,샴푸,치약,치솔), 여별 옷, 개인 썬크림, 썬글라스, 슬리퍼, 개인상비약

6. 뮤지컬 - 예수 그리스도

제목 :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생애)
주관 : 더 블레싱 프로덕션
일시 : 2024년 8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출발 : 오후 1시 00분 (교회에서)

7. 2024년 8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6.27 ~ 7.28)

8. 1(월) 박자아 8. 7(수) 정애자(-7.4) 8. 7(수) 신미경(-7.4) 8. 9(금) 이광근
8.11(일) 김치린 8.12(월) 고은지 8.16(금) 김현경 8.16(금) 김동찬 (-7.13)
8.18(일) 장차라 8.19(월) 김도현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8/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8/04	청년부 헌신의 주일
05~07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궁평아일랜드펜션 304호(30명)
08/10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 오후 2시
08/11	8.15 해방 감사주일
08/18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08/25	모로코 선교 헌신예배
08/27	함베드로·안사랑 선교사 출국
09/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2~07	가을맞이 특별새벽기도회
09/08	평신도주일
09/15	추석 명절맞이 감사예배 (16~18)
09/22	순교자 기념주일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일~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8/04 정애자 권사
- 08/11 박제연 집사
- 08/18 이광근 안주집사
- 08/25 임명자 집사
- 09/01 임명숙 집사
- 09/08 김혜숙 권사
- 09/15 정애자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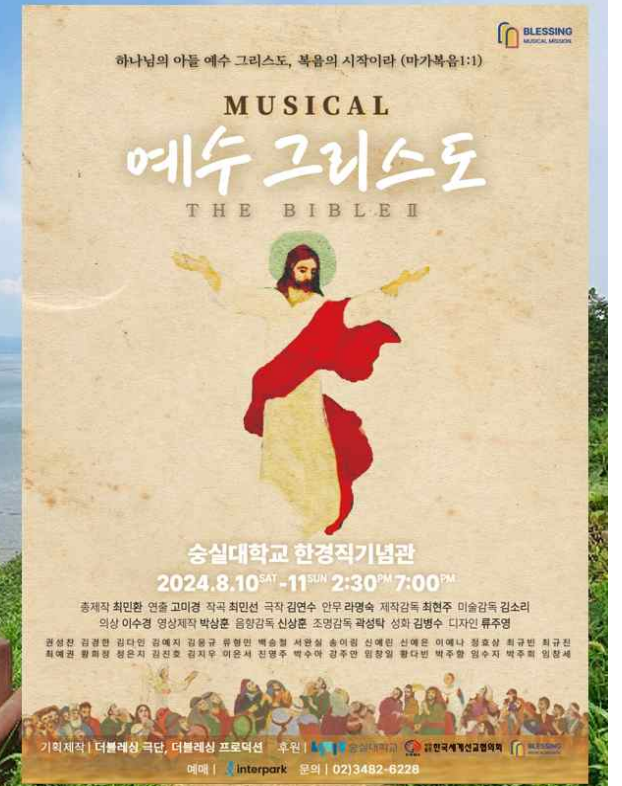


주사랑 7권 30호 | 2024년 7월 28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한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8월 2024 회복과 성장의 달

- 01일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 04일 청소년 헌신의 주일 [특송]
- 05일 청소년 여름 수련회 [8/5~7]
- 10일 교회학교 뮤지컬 관람 [예수 그리스도]
- 11일 8.15 해방 감사주일
- 18일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개학 축복 기도]
- 25일 해외 선교 헌신예배 [모로코]
- 27일 함베드로, 안사랑 선교사 출국 [모로코]

2024년 표어 :
성령과의 동행으로
평안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 [행 9:31]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청소년부 헌신의 주일) 인도:집례자

- ※ 목 도 마태복음 11:28~30 다 같 이
- ※ 찬 송 가 찬 415장 다 같 이
(십자가 그늘 아래)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서교독 No.84 히브리서 11장 다 같 이
- 찬 송 가 찬 309장 다 같 이
(목마른 내 영혼)
- 대표기도 정애자 권사
영전도장/중보기도장
- 성경봉독 열왕기상 18:41~46 (구 549) 정애자 권사
- 특 송 (1) 주만바라볼지라 클라리넷 한희락
- 특 송 (2) 가서제자삼오라 청소년부 일동
- 광 고 한승훈 목사
- 말씀인도 일곱 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찬 406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김혜숙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 한승훈 임명순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현수현진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희락
-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김혜숙 / 오복상 방애경(2) 한승훈 임명순
- 건축헌금 : 조남간 박윤미 / 한승훈 임명순
- 성경학교 : 임명숙 임명자 장사라 한승훈 임명순 무명
-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소망제광교회 인양중앙교회 희망찬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수정 목사(예배)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훈홈스쿨)  이재우 재학자 홈스쿨링 성경기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햄페르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캄피온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아진운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인터콧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촌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경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통일선교 비전기도의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44:15~30 (구 1123)
 말씀제목 반드시 기억하내어 심판하겠다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요한복음 6:60~71 (신 154)
 말씀제목 너희도 가려느냐?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가족예배로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상 9:1~9 (구 528)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순종이 제사(성전)보다 낫다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아비찬양단
 성경봉독 에베소서 4:1~16 (신 313)
 말씀제목 부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분대로

새 벽 기 도 의

새벽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4일(일) 렘 44:15-30 기억하내어 심판하겠다
 5일(월) 렘 45:1-46:12 청소년 수련회
 6일(화) 렘 46:13-28 (개인 묵상)
 7일(수) 렘 47:1-48:10
 8일(목) 렘 48:11-25 그모를삼는 내외 쉼
 9일(금) 렘 48:26-35 애를 알면 심판을 대히
 10일(토) 렘 48:36-47 교만하면 마는 없다
 11일(일) 렘 49:1-6 부요가 너희를 잊어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⑧ 하나님께 끊임없이 악을 행하던 아합의 기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사건의 전황은? (왕하 10:7)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 ⑨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죄악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이유는? (왕하 10:30~31)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 ⑩ 유다의 여왕으로 굴림했던 자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모든 왕손을 죽이고 스스로 왕에 오른 여인은?(왕하 11:1)
아하시야의 어머니 ()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 ⑪ 아달라의 모반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킨 왕은?(왕하 11:2~3)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 ⑫ 요아스가 7세에 등극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이유는? (왕하 11:17~20)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와 언약을 맺어 ()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 ⑬ 요아스가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책망을 받게 된 사건은?(왕하 13:18~19)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치리이다 하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분해 해드립니다)

- ①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그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칠 뻔했던 말은? (왕하 5:10~11)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 () 이르되 ()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 ② 나아만이 치료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왕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 ③ 아람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승산있는 전술이 매번 실패한 원인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올 때, 그들을 물리친 방법은? (왕하 6:15~17)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 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 과 () 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 ④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의 가족에게 떠나라고 명한 이유는? (왕하 8: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 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 임하리라 하니
- ⑤ 병든 아람의 왕 벤하닷을 위해 엘리사에게 찾아온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가 울었던 이유는? (왕하 8: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 을 내가 앞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치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 ⑥ 유다의왕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범했음에도 유다를 치지 않으신 이유는? (왕하 8:19)
 여호와께서 그의 종 () 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 고 말씀하셨음이다
- ⑦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은? (왕하 9:1~2)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 () 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2024년 청소년·청년부 연합 수련회 일정

2024년 8월	5일(월)	6일(화)	7일(수)	
6시 ~ 30	선빌대 단체짐 아이스박스, 빔프로젝터, 가타 스크린, MDM, 게임용품 프린터, 사진인화기, 멀티탭		선빌대 단체짐	
7시 ~ 30		세면	세면	
8시 ~ 30		아침식사 (간편식사)	아침식사 (간편식사)	
9시 ~ 30		찬양 밀씀	찬양 밀씀(1)	
10시 ~ 30		공과(2과) 기도	공과(5과) 기도	
11시 ~ 30		휴식	휴식	
12시 ~ 30		점심식사 (매식)	점심식사 (매식)	
1시 ~ 30		후빌대 출발		
2시 ~ 30			찬양 밀씀	
3시 ~ 30		입실 O·T	공과(3과) 기도	교회도착 (오후3시)
4시 ~ 30		공동체 자유시간 (알바다)	공동체 자유시간 (알바다)	수요예배
5시 ~ 30				
6시 ~ 30	저녁식사 (바베큐)	저녁식사 (부대찌개)		
7시 ~ 30	정리	정리		
8시 ~ 30	찬양 밀씀	찬양 밀씀		
9시 ~ 30	공과(1과) 기도	공과(4과) 기도		
10시 ~ 30	공동체 자유시간 (밤바다 산책)	공동체 자유시간 (불꽃놀이)		
11시 ~ 30				
식사	5일(월)	6일(화)	7일(수)	
아침	선빌대	간편식사 시리얼, 토스트, 우유, 식빵 팜, 달걀, 토스트, 야채샐러드	간편식사 컵라면, 시리얼, 가타	
점심	출발	칼국수 (매식)	닭강정 (매식)	
저녁	바베큐 파티 삼겹살, 소세지, 상추, 버섯 새우, 생선, 양파, 감자, 찜닭	부대찌개 말티트 라면사리	교회도착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240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어	머	니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9: 10~28 (구 527).....	아	버	지(父)
견고하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자.			
말 씬 인 도.....	어	머	니(母)
합 심 기 도.....	다	같	이
헌 금 기 도..... 찬 212장.....	자	녀	들 중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본문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가나안 땅의 성읍 스무 개를 주고, 금 120달란트(약 4톤)을 받는 거래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성과 요새를 만들어 수비를 철저히 하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세워 군사력을 강화 합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만들면서 외교적으로도 성과를 이룹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거래한 히람(10~14),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15~19), 솔로몬이 부린 사람(20~23), 솔로몬이 만든 기타 건축물(24~25), 솔로몬이 만든 무역선(26~28) 등등. 어느덧 솔로몬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고전 10:12). 흥할수록 더욱 깨어서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해치고 영혼을 해치는 위험한 요소들이 늘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솔로몬을 넘어지게 한 그림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 언약보다 이권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한 두로 왕 히람에게,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줍니다. 갈릴리 지역은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와 가까운 경계 지역으로 솔로몬은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로 경계에 있는 성읍을 양보한 것입니다. 영토와 성을 교환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왕실 기록, 조약, 연보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관습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을 보고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성읍이 있는 지역을 ‘가불 땅’, 즉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록 땅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히람이 바친 120달란트(약 4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주고 거래가 끝납니다.

그러나 히람의 금이 솔로몬의 국가 재정에 상당한 이득이었을 것일 지라도, 솔로몬이 가나안 땅 일부를 이방 사람인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지계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신 27:17, 호 5:10)는 신명기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에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외교적·정치적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은 땅을 선물로 받은 언약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둘째, 크고 화려한 건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일으킨 많은 건축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앞세워, 솔로몬

왕궁을 짓고, 성전과 왕궁을 떠받치는 엄청난 규모의 기둥과 벽인 밀로를 세웠으며, 또 경제·군사적으로 요충지인 하솔, 므깃도, 게셀을 건축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요새화 하여 이스라엘의 수비를 강화했습니다(15). 솔로몬은 국고성을 세워 솔로몬 자신의 재산이나 곡식을 저장하거나, 왕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과 전쟁 시에 사용하는 군량미 등을 저장하는 성읍을 짓고, 병거부대와 기마부대가 주둔하는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합니다(19). 솔로몬은 이방 왕들처럼 대규모 건축 공사를 통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 또 군사와 외교적인 면에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신 17:16~17)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성공이 솔로몬의 신앙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사귄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건물의 외형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과 완성을 이룹니다.

셋째,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명단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떨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신 20:17), 충분히 진멸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힘이 생기자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건축 공사에는 자기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노예가 아닌 간부로 동원했다고는 하지만, 장기간의 큰 공사는 백성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일이나 성취에 주목하다보면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거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작이요 징조입니다.

넷째,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 밀로를 지었다고 보고합니다(24).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왕궁이 지어질 때까지 다윗 성에 데려다 놓고, 아내의 궁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왕상 3:1).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큰 패착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신 7:1~4, 말 2:11). 외교적 실리를 위해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며,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 부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제단에서 일 년에 세 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분향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 이스라엘의 3대제사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과 아내와 아내의 나라인 애굽의 환심을 사는데 점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이 아쉽습니다.

■ 결론

어느덧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초기의 겸손한 솔로몬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왕이라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다윗에 이어 솔로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타산지석 삼아 나를 살피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야 합니다.